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이향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고향을 떠나다.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19세기	6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5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이향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고향을 떠나다.

이향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이향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향ᄒᆞ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이향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이향ᄒᆞ- 문헌 수록 표기	—	—	—	—	●→	●→
離鄕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리향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이향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이향ᄒᆞ다
  19세기20세기
- 이향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이향ᄒᆞ-, 離鄕하-, 리향하-, 이향하-

이향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이향하다’는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이향ᄒᆞ다’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離鄕하다’도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이향ᄒᆞ-’는 한자어 ‘離鄕’(이향)을 한글로 표기한 ‘이향’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ᄒᆞ-’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 ‘ㆍ’가 ‘ㅏ’로 표기된 ‘이향하다’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는 두음 법칙이 반영되지 않은 ‘리향하-’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이향하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이향ᄒᆞ-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이향ᄒᆞ-

출처 1880 한불자전 37 용례 01

문헌 용례

이향ᄒᆞ다 移鄕.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이향ᄒᆞ-, 離鄕하-, 리향하- 외 1종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이향ᄒᆞ-, 離鄕하-, 리향하-, 이향하-

출처 1922 김희경전 281 용례 02

문헌 용례

유모와 시비 등이 희경을 싱각ᄒᆞ고 ᄎᆞ져 의지코ᄌᆞ 가온즉 희경이 ᄯᅩ한 이향ᄒᆞ온지라죵젹이 망연ᄒᆞ고.

현대어 풀이

유모와 시비 등이 희경을 생각하고 찾아 의지하고자 갔는데 희경이 또한 이향을 하여 종적이 막연하고.

출처 1929 동아일보 3월 6일 4면 용례 03

문헌 용례

이러한 사랑의 줄을 믄코 奮然히 成功을 盟誓하면서 離鄕하랴는 그들의 心思야 果然 어써하얏스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동아일보 8월 26일 1면

용례 04

문헌 용례

그러나 누가 故土를 떠나기 조하할 사람이냐. 죽지 못해서 離鄕하는 것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조선일보 10월20일 2면

용례 05

문헌 용례

작년까지 련삼년 흉작으로 리향(離鄕)한 호수가 륙백여호로서 현재는 일차 사백여호밧게 안 되는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10월16일 7면

용례 06

문헌 용례

이번 수해로 인하야 가장 집물을 일코 할 수 업시 이향(離鄕)하게 된 참경에 잇는 이재민이 얼마나 만흔지 추칙하고 남음이 잇다 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이향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이향하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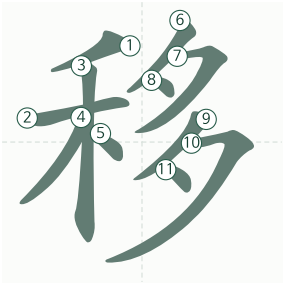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移

뜻·음 옮길 이

총 11획 · 부수 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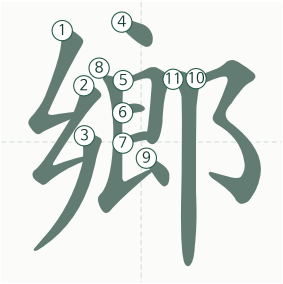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移/

鄕

뜻·음 시골 향

총 13획 · 부수 邑





사전 13획 · 획순 그림 11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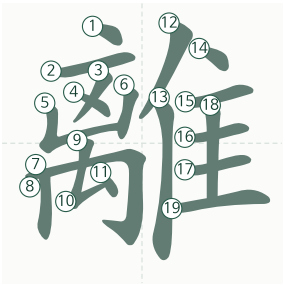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鄕/

離

뜻·음 떠날 리

총 19획 · 부수 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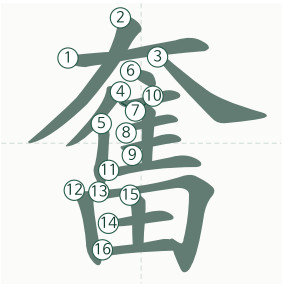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離/

奮

뜻·음 떨칠 분

총 16획 · 부수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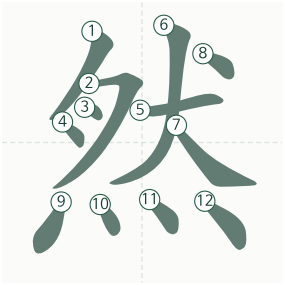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奮/

然

뜻·음 그럴 연

총 12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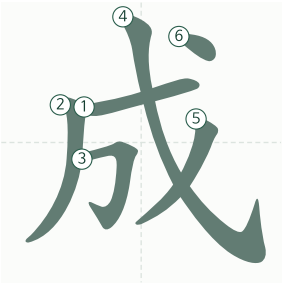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然/

成

뜻·음 이룰 성

총 7획 · 부수 戈





사전 7획 · 획순 그림 6획

hanja.wordrow.kr/한자/成/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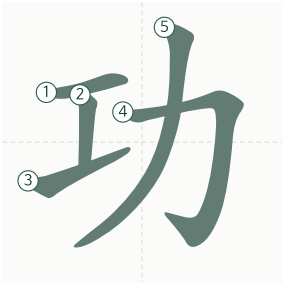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功

뜻·음 공[勳] 공

총 5획 · 부수 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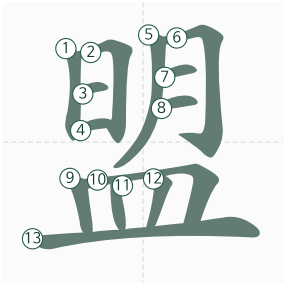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功/

盟

뜻·음 맹세 맹

총 13획 · 부수 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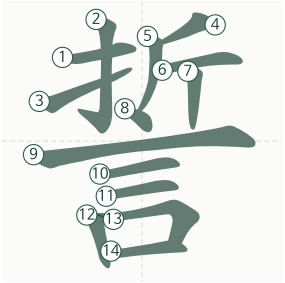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盟/

誓

뜻·음 맹세할 서

총 14획 · 부수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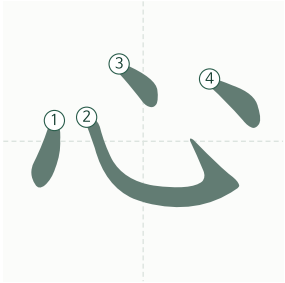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誓/

心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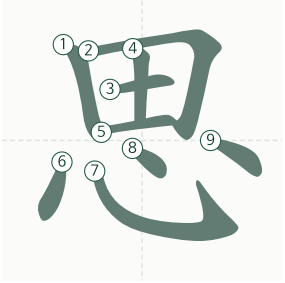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心/

思

뜻·음 생각 사

총 9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思/

果

뜻·음 실과 과

총 8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果/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3 / 3 · 15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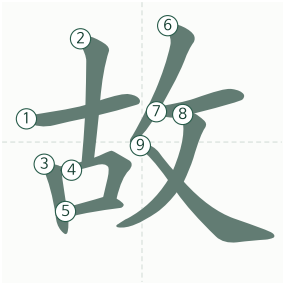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故

뜻·음 연고 고

총 9획 · 부수 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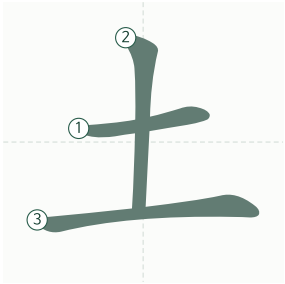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故/

土

뜻·음 흙 토

총 3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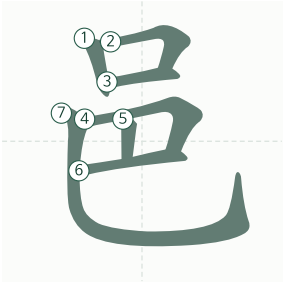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土/

邑

뜻·음 고을 읍

총 7획 · 부수 邑





hanja.wordrow.kr/한자/邑/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隹.